

모노래 ‘이 물꼬’ 사설의 첩노래 수용 양상 연구

이소윤*

- I. 문제 제기
- II. ‘이 물꼬’ 사설의 존재 양상과 유형
- III. 주인네 마누라의 세 가지 양상과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모노래 ‘이 물꼬’ 사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해석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형 사설에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꼬’ 사설이 사건화될 단서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롱과 조소의 대상이던 주인네 마누라가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거듭나는 점은 앞으로 첩노래 사설이 ‘이 물꼬’ 사설에 수용될 수 있는 전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물꼬’ 사설에 장편화된 첩노래의 사설이 수용된 경우 창자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첩의 집에 놀러가는 주인네 양반의 처지에 공감할 수 없었던 남성 향유층과 달리 여성 향유층은 첩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주인네 마누라의 처지에 쉽게 공감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물꼬’ 사설의 사건화 양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첩노래 수용에 여성 향유층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 유념할 것은 ‘이 물꼬’ 사설에 등장한 주인네 마누라를 첩노래 사설에 등장하는 ‘큰어머니’로까지 전화(轉化)하게 만든 ‘첩’의 존재이다. ‘첩’은 전근대 남성 중심의 일부다처제 현실을 암시하는 존재로서 당대 남성에게는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욕망의 대상으로, 당대 여성에게는 분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인식의 방향은 달랐지만 ‘첩’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 향유층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였기에 남녀가 같이 모를 심는 노동 현장에서 쉽게 공론화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첩’을 바라보는 남성 향유층과 여성 향유층의 인식상 대립이 첩노래 사설을 모노래 사설에 끌어들이는 특이 현상을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첩’이 ‘이 물꼬’ 사설의 사건화 양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첩노래 수용 양상에 끼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심어: 노동요, 서사민요, 수용, 모노래, 첩노래, 이 물꼬 사설, 주인네 마누라, 첩, 여성 향유층

1. 문제 제기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노동요인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 서사민요인 첩노래의 일부 사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¹⁾ 주지하다시피 노동요는 기능에 따른 민요 분류의 하위범주이며 서사민요는 장르에 따른 민요 분류의 하위범주가 된다.²⁾ 이에 따르면 노동요와 서사민요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파생된 개념으로 그 경계가 중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조동일은 그러한 가능성을 길쌈노동요에 한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조동일

1) 여기서 첩노래 사설이란 ‘첩으로 인해 불행했다→첩의 집을 찾아갔다→어쩔 수 없이 되돌아 왔다’라는 식의 내용을 갖춘 서사민요를 말한다.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78면. 서영숙은 ‘첩노래’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첩을 죽이려고 첩의 집에만 본처/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가 1유형이며 “첩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 자살하는 본처”가 2유형, “첩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 첩의 부고를 받는 본처”가 3유형, “첩의 부고를 받고 기뻐하는 본처”가 4유형이다. 이 과정에서 서영숙 또한 모노래라고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모노래 사설 가운데 첩노래가 나타난 사설을 같이 다루고 있다. 서영숙, 『처첩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의식』, 『어문연구』 제55집, 어문연구학회, 2007, 293면 참조.

2) 『구비문학개설』에서는 ①기능, ②가장방식 및 율격, ③장르 ④장자를 기준으로 민요를 분류하고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와 장르에 따른 분류만 간략히 살펴보면 기능에 따른 분류는 크게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나뉘며 노동요는 의식요, 유희요와 함께 기능요에 속한다. 장르에 의한 분류는 교술민요, 서정민요, 서사민요, 희곡민요로 나뉜다. 장덕순 외, 『한국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3, 115~154면.

은 장르, 유형, 문체, 전송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서사민요를 고찰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사민요를 “일정한 인물과 사건을 갖춘 이야기로 된 민요”라고 규정하며 대개의 서사민요가 길쌈노동요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노동요가 지닌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통일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는 선후창이나 교환창으로 부르는 게 보통”인데, 길쌈노동요는 행동통일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선후창이거나 교환창일 필요가 없어 서사민요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논노래나 모노래와 같은 농업노동요는 행동통일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논노래는 선후창으로 모노래는 교환창으로 불리고 있으며 따라서 서사민요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에 따라 그가 유형화한 서사민요의 첩노래 또한 길쌈노동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된다.³⁾ 그러나 실제 모노래 사설을 검토해보면 첩노래 사설이 농업노동요인 모노래 사설에서도 포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영숙의 지적대로 서사민요는 여러 구연 상황에서 실현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다.⁴⁾

모노래는 모심기 노래, 모심는 소리, 모내기 노래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곧 모노래가 전국에서 불렸던 노래라는 사실을 나타낸다.⁵⁾ 실제로 모노래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노동요의 전체적인 국면을 설명하기에 알맞고, 또 지역별로 대립적인 성격이 뚜렷하여 지역적 구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⁶⁾ 따라서 모노래를 통해 한국 노동요 혹은 농업요의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모노래의 권역별 지역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⁷⁾ 한편 모노래

3) 조동일, 앞의 책, 16~42면. 물론 꼭 길쌈노동요에서 파생된 서사민요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에서 파생된 서사민요도 다루고 있는데, 이때 그것은 노동요가 아닌 ‘중년소리’라는 새로운 민요로부터 파생된 것에 해당한다.

4)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역락, 2009, 75~76면.

5) 모내기는 작업 과정에 따라 ‘모찌기’와 ‘모심기’로 나뉘며 이때 부르는 노래 역시 모찌기 노래와 모심기 노래로 나뉜다. 이에 대해 장유정은 모찌기 노래와 모심기 노래를 ‘모노래’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다.(장유정, 『교환창 모노래의 2행시 구성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6면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모노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6)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232면.

를 본격적인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시학적 관점에서 모노래의 시적 구성 또는 2행시 구성방식을 분석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가창방식과 사설구조를 해명한 연구, 모노래에 담긴 성적 담론이나 애정 담론을 밝혀낸 연구 등이 있었다.⁸⁾ 그런데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모노래가 노동요의 하위 범주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모노래에서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사설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한다는 것 역시 주로 노동요의 기능적 측면에서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서 이해되어 왔다.⁹⁾ 즉 선행연구에서는 항상 노동요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모노래의 구

-
- 7) 김진순, 『한국 농업노동요의 분류와 분포-남한지역 농농사 소리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강등학,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제38집, 한국민속학회, 2003.
 서영숙, 『충청북도 농업노동요의 전승양상 분석』, 『한국민요학』 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서영숙, 『충청의 자연과 민요문화권-<모심는 소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72집, 어문연구학회, 2012.
 이창신, 『충청북도 농요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선애, 『<모심는소리>연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강등학, 『<정자소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제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최자은, 『영남지역 정자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성』, 『한국민요학』 제30집, 한국민요학회, 2010.
 정한기, 『영남지역 <모심는소리>의 애정 노랫말에 나타난 정서와 그 의미』, 『한국민요학』 제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정한기, 『영호남지역 <모심는소리>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과 배경』, 『한국민요학』 제39집, 한국민요학회, 2013.
 정한기, 『호남 지역 민요의 배경과 특징-<논매는소리>와 <모심는소리>에 나타난 애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 8) 최원오, 『민요의 시학적 성격 연구-<모심는소리>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장유정, 앞의 논문, 1998.
 장유정, 『시어의 측면에서 본 교환창 모노래의 특성』, 『한국민요학』 제6집, 한국민요학회, 1999.
 서영숙, 『모심는 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조-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1집, 어문연구학회, 1999.
 이창식, 『민요의 성담론과 사랑 표출양상』, 『실천민속학연구』 제8호, 실천민속학회, 2006.
 박선애, 『모심는 소리에 나타난 담론 양상』, 『인문과학연구』 제26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9) 대표적인 예로 임재혜의 논의가 있다. 임재혜, 『상주 모노래의 ‘공갈뭇’ 상징과 ‘연정요’로서

체적인 사설을 분석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요인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서 서사민요인 첩노래의 일부 사설이 수용된 흔적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첩노래의 사설이 수용된 모노래 사설은 바로 '이 물꼬 저 물꼬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로 갔나/주인네 양반 문어와 전복 들고 첩의 집에 놀러 갔네'(이하 '이 물꼬' 사설)라는 내용의 사설이다. 이 사설은 선행연구에서 주인 양반에 대한 서민들의 반항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모노래 사설 중에서도 독자적인 주목을 받아왔다.¹⁰⁾ 특히 최철은 주인 양반이 첩의 집에 몰래 가는 장면을 그려보는 민중의 상상력이 농민의 노동에 활력을 주는 모종의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¹⁾ 이에 대해 장유정도 최철의 논의를 일부 긍정하면서 주인 양반에 대한 농민의 은근한 부러움이 드러난다고 서술하였으며¹²⁾ 서영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설 속 주인 양반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망의 대상이자 질시의 대상이고 주인 양반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강한 비판의 대상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¹³⁾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모노래 사설 속에 등장하는 첩노래 사설의 존재가 지적된 이후로¹⁴⁾ 박선애가 모노래 사설에 다른 노래의 사설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모노래 사설 내의 첩노래 사설의 존재 사실을 언급하였고¹⁵⁾ 이에 최자운 역시 가창자의 성별에 따라 사설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모노래의 사설을 통해 예증하며 첩노래의 사설이 담긴 모노래 사설까지 함께 검토하였다.¹⁶⁾ 정한기는 모노래 사설에 수용된 첩노래 사설이 서영숙이 유형화한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기능], 김기현 외, 『농경문화를 꽃 피운 상주민요』, 민속원, 2013.

10)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고정옥과 정동화가 있다.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동문선, 1998, 116면.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66면.

11) 최철, 『한국민요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72~73면.

12) 장유정, 앞의 논문, 1998, 27~28면.

13) 서영숙, 앞의 논문, 1999, 199~200면.

14) 한편 강환희는 “첩의 방은 꽃밭이요/이내방은 연못이라/꽃밭에나비는 봄한철이요/연못에금붕어는 사철이라.”(32번 자료, 『대계』 7-5)라는 사설을 소개하며 모노래에 처첩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사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환희, 『모심기소리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5면.

15) 박선애, 앞의 논문, 2009, 11~12면.

16) 최자운, 앞의 논문, 369~370면.

본처” 유형임을 밝히면서 첩노래와 달리 모노래에서는 본처의 심리적 태도만이 독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⁷⁾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첩노래 사설이 수용된 특정한 모노래 사설을 모노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등학은 모노래의 악곡을 유지하되 내용만 첩노래의 사설인 경우, 엄밀하게 말해 모노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⁸⁾ 요컨대 서사민요의 사설을 수용한 노동요는 그 본연의 모습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이기에 진정한 노동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모노래가 가장되는 현장을 고려한다면 첩노래의 사설이 담긴 모노래 역시 모노래의 일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서는 모노래의 특정 사설이 첩노래 사설을 수용한 양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찰한 바가 없다. 정한기가 지적하였듯 첩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큰어머니’, 곧 본처이다. 그렇다면 주인 양반만 언급되는 모노래 사설뿐만 아니라 본처인 주인네 마누라까지 등장하는 모노래 사설까지 함께 검토해야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 첩노래가 수용된 현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주자료로 삼아 주인네 양반뿐만 아니라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하는 모노래 사설까지 포괄하여 검토하고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 첩노래가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 물꼬’ 사설의 존재 양상과 유형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모노래는 총 401편이며 그 중에 ‘이 물꼬 저 물꼬 헤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로 갔나’로 시작하는 내용의 사설은 총 69편이다.¹⁹⁾ 그 분포양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편, 강원도 1편, 전라도 13편, 경상도와 대구시 54편으로 영남지방이 지역적인 우세를 보인다.

17) 정한기, 앞의 논문, 2013, 320면.

18) 강등학, 앞의 논문, 2010, 40~41면.

19) 『한국구비문학대계』는 개정증보판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검토하였다.

강등학에 따르면 모노레는 현재 20여종이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하나소리, 아라리, 상사소리, 정자소리이다. 이들 모노레의 집중적인 분포지는 각각 경기도, 강원도, 충남 및 호남지역, 영남지역이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작은 범주로 경기도 동부와 강원도 서북부에 걸쳐 미나리가 불렸다. 따라서 모노레의 민요권은 하나소리권, 아라리권, 상사소리권, 정자소리권, 미나리권의 5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²⁰⁾ 이 가운데 정자소리는 2행 단위의 가사라는 형식적 특징을 지니는데, ‘이 물꼬 저 물꼬 헐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디로 갔나’로 시작하는 약칭 ‘이 물꼬’ 사설은 바로 이 정자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물꼬’ 사설이 영남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모노레의 민요권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물꼬’ 사설의 창자를 살펴보면 남성창자와 여성창자가 함께 가창한 것이 3편이며 남성창자가 가창한 것이 25편, 여성창자가 가창한 것이 41편으로 여성창자의 가창 비율이 59.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²¹⁾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로 정리해놓았다.

번호	제목	지역	창자	성별	나이	채록일	대계	유형
1	모심기 노래	서울시 수유 3동 강성도택	강성도	남	69	1979.06.20	1-1	A
2	모심기 노래	강원도 영월읍 하송 5리	이남순	여	62	1983.07.16	2-9	A
3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고도 마을회관	김양근	남	83	2009.01.14	5-8	A
			박순이	여	87			
4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고창 마을회관	김옥길	"	73	2009.02.13	"	Bb
5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유평 마을회관	유순	"	66	2009.02.14	"	A
6	모심는 소리	"	이명순	"	75	2009.02.13	"	Ba
			김봉순	"	83			
7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 곽윤근택	곽윤근	남	95	2009.01.30	"	A

20) 강등학, 앞의 논문, 2008, 30~31면.

21) 남성창자는 36.231% 남녀창자는 4.347%의 비율로 나타난다.

8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 마을회관	이병상	"	87	"	"	Bc
9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배방 마을회관	최일남	"	93	"	"	Ba
10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사탄마을 이영복댁	김동희	여	72	2009.02.07	"	A
11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구역 마을회관	김말례	"	77	2009.02.22	"	A
12	모심는 소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마산 마을회관	정영숙	"	"	2009.02.21	"	Ba
			유남옥	"	"			
13	모심는 소리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문예복지관 경로당	서중식	남	83	2010.01.28	5-9	A
			최장수	"	79			
14	모찌는 소리	"	양만석	"	78	"	"	Bc
15	모찌기노래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번등	천학실	"	71	1980.08.25	6-2	A
			윤예병	"	62			
16	모내기 노래	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 2리 갯길	이원육	"	59	1979.02.23	7-1	A
			이영원	"	48			
17	모내기 노래	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 1리 가정	김원락	"	61	1979.02.24	"	A
			임대순	"	58			
18	모내기 노래	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 3리 마룻골	한동수	"	64	1979.02.26	"	A
			최정수	"	66			
			한치문	"	67			
19	모노래, 모내기 노래	경북 월성군 외동면 입실 2리 순금	황원순	여	73	1979.04.05	7-2	Bb
			문분조	"	65			
20	모노래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석계 1리 아랫돌깨	허수선	"	68	1979.04.06	"	A
21	모노래	"	최가수	남	72	"	"	A
22	모노래	"	김혜순	여	55	"	"	Bc
23	모노래, 모승기 노래	"	신용석	남	57	1967.04.07	"	A
24	모승기 노래, 모노래	"	임하계댁	여	81	1979.04.08	"	A
25	모승기 노래, 모노래	"	손순조	"	49	"	"	A

26	모노레	경북 월성군 감포읍 양북면 봉길리 수계동	주손남	"	74	1979.08.16	"	Ba
27	모노레	경북 월성군 감포읍 대본 3리 대밀	정복순	"	64	"	"	A
			김덕현	"	58			
28	모노레	경북 월성군 안강읍 근계 2리	정필희	"	60	1979.05.20	7-3	A
			진돌이	"	48			
29	모심기 노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 1동 유촌	이태순	여	65	1979.04.01	7-4	Bc
30	모노레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 1동 신기마	서기선	"	50	1979.04.04	"	Bc
31	모심기 노래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신 2동 울미	조만순	"	"	1979.06.07	7-5	Bc
32	모노레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죽 1동 대실	이민기	남	66	1979.11.09	"	A
33	모노레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 1동 새솔마	이완성	여	79	1980.06.06	7-6	A
			김대암	"	72			
34	모노레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 1동 오말	이태호	남	63	1980.06.07	"	A
			백남교	여	58			
35	모노레	경북 영덕군 당산면 대지 1동 가질	이중철	남	60	1980.02.29	"	Bc
36	모노레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 2동	심화이	여	80	1980.06.05	7-7	A
			김난희	"	64			
37	모노레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 1동 구강구	최인이	"	67	1980.02.08	"	Bc
			오순녀	"	73			
38	모심기 노래	경북 상주군 청리면 원장 1리 뒷뜰	김모하	"	74	1981.10.18	7-8	Bb
39	모심기 노래	경북 안동군 임동면 수곡동 무실	류명진	남	78	1981.11.20	7-9	A
40	모심기 소리	경북 안동군 임하면 금소 1동 옷마	임택섭	"	47	1980.08.11	"	A
41	모심기 노래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 3동	박재현	"	63	1982.07.27	7-11	A
42	모심기 노래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 2동	김태우	"	66	1982.08.05	"	A
43	모심기 노래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 1동	이금순	여	61	"	"	Bc
44	모심기 노래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동	홍윤달	남	64	1982.01.28	7-12	A

45	모심기 노래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북 2동	이대동	여	70	1982.08.09	"	Bb
46	모심기 노래	대구시 동구 불로 1동	서정록	남	71	1983.08.09	7-13	A
47	모심기 노래	"	김위달	여	"	1983.08.13	"	Bc
48	모심기 노래	경북 달성군 화원면 설화동	김병태	남	74	1983.09.03	7-14	A
49	모심기 노래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송두리	여	65	1983.12.23	"	Ba
50	모심기 노래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동	김옥련	"	50	1984.01.14	"	Bc
51	모심기 노래	"	정수달	남	57	1984.01.15	"	A
			최복순	"	60			
52	모심기 노래	경북 선산군 장천면 상림동 상림	김을년	여	70	1984.08.16	7-16	A
53	모심기 노래	"	김을녀	"	70	"	"	A
			김인분	"	51			
54	모심기 소리1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마을회관	이금분	"	78	2009.02.23	7-19	A
55	모심기 소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2리 마을회관	양옥순	"	74	2009.02.25	"	A
			장순금	"	87			
56	모심기 노래	경남 거제군 신현읍 상동리 용산	주순선	"	54	1979.07.27	8-1	A
57	모찌기 노래	경남 거제군 하청면 어은리 장곳	김옥란	"	75	1979.07.30	"	Bc
58	모노래	경남 진양군 사봉면 북마성리 매결	유쾌연	여	53	1980.08.09	8-3	Ba
			강외순	"	55			
59	모심기 노래	경남 진양군 금곡면 검암리 운문	정쌍현	"	73	1980.08.10	"	Bb
60	모심기 노래	경남 진양군 정촌면 화개리 모심	박영만	남	84	1980.08.11	"	A
			강선호	"	66			
61	모노래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단목	김영숙	여	67	1980.08.03	8-4	A
			이병현	"	56			
62	모심기 노래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섬마을	김돌이	"	53	1980.08.07	"	Ba
63	모심기 노래	경남 진양군 명석면 신기리 새마을	홍남수	"	57	1980.08.05	"	Ba

64	모심기 노래	경남 진양군 명석면 신기리 술기	강문선	"	47	1980.08.06	"	A
			유기세	남	62			
			이순이	여	47			
65	모심기 노래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	성양자	"	68	1980.02.27	8-5	A
66	모심기 노래	"	형기순	"	56	"	"	A
67	모심기 노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지하	남석규	남	"	1980.12.01	"	A
68	모심기 노래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월부산	신현일	"	65	1980.08.05	"	A
69	모심기 노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광성	오춘자	여	52	1980.08.04	"	Bc

이상의 사설을 검토하여 '이 물꼬' 사설의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A.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

1, 2, 3, 5, 7, 10, 11, 13, 15, 16, 17, 18, 20, 21, 23, 24, 25,
27, 28, 32, 33, 34, 36, 39, 40, 41, 42, 44, 46, 48, 51, 52, 53,
54, 55, 56, 60, 61, 64, 65, 66, 67, 68. 총 43편.

B.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

Ba. 주인네 양반 사설

6, 9, 12, 26, 49, 58, 62, 63. 총 8편.

Bb. 주인네 마누라 사설

4, 19, 38, 45, 59. 총 5편.

Bc. 큰어머니(첩노래) 사설

8, 14, 22, 29, 30, 31, 35, 37, 43, 47, 50, 57, 69. 총 13편.

A.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은 “이물끼저물끼 허혈어놓고 권네양반은 어

디로갔나/문ैया대전복 손에들고 첩야방으로 놀로갔지”라는 내용의 2행 사설로 69편 중 43편이 이에 해당한다.²²⁾ 나머지 26편은 A 유형을 기본으로 사설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B.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이라 명명하였다. 그 중 **Ba. 주인네 양반 사설**은 8편으로 주인네 양반이 첩의 집에 가는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식의 사설이 덧붙은 경우이다. **Bb. 주인네 마누라 사설**은 A 유형에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하는 사설이 확장된 경우로 모두 5편에 해당한다. **Bb. 큰어머니(첩노래) 사설**은 A 유형에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 유형의 첩노래 사설이 확장된 경우로 13편이 이에 해당한다.²³⁾ 이상의 유형분류에 비추어볼 때 모노래 ‘이 물꼬’ 사설의 첩노래 수용 양상은 다름 아닌 ‘주인네 마누라’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주로 ‘주인네 마누라’를 중심으로 모노래 ‘이 물꼬’ 사설의 첩노래 수용 양상을 논의하도록 한다.

III. 주인네 마누라의 세 가지 양상과 의미

1. 희롱과 조소의 대상으로서 주인네 마누라

정자소리는 2행 단위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가사라는 형식적 특징을 지닌다. 2행 단위의 가사가 연속될 때 대개 2행은 다른 2행과 의미상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아래 제시한 자료 (가)는 그러한 정자소리의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가)

유자석로가 근원이좋아 한쪽지에 둘씩셋씩

22) 32번 자료, 『대계』 7-1, 528면. *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우, 『대계』로 약칭하고 권수와 면수만 제시하도록 한다.

23) 지금까지 사용해온 첩노래를 괄호 처리하고 큰어머니 사설이라 명명한 것은 주인네 마누라 사설과 첩노래 사설로 명명할 경우 유형명의 층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본고에서 거론해온 첩노래 사설은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를 주인공으로 하는 특정한 서사민요를 가리킨다. 따라서 Ba 유형과 Bb 유형과 같이 해당 사설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에서 그 명칭을 가져오기로 하고 Bc. 큰어머니(첩노래) 사설로 명명하도록 한다.

광풍이 건들붙어 떨어질까 염려로다

산도설고 물도선대 누구를보고 내가왔나
조고만한 너를 보고 불원천리 내가왔다

남산아래 눈을쳐서 수양대붓물 후여대어
문다맬논을 다맬라다가 수많은친구 잃고간다²⁴⁾

위에 예시된 자료 (가)를 보면 1~2행은 유자와 석류가 광풍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며, 3~4행은 산 넘고 물 건너 불원천리 먼 길을 오로지 입을 만나기 위해 내달려 온 화자의 애타는 심정이, 5~6행은 무리하게 다 매지 못할 눈을 매려다가 친구를 잃게 된 화자의 쓸쓸한 정황이 나타난다. 즉 1~2행, 3~4행, 5~6행의 시적 화자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자소리는 의미상 각각 독립적 성격을 지니는 2행 단위의 가사를 창자의 역량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창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살펴보는 '이 물꼬' 사설에 의미상 앞의 2행과 연속된 내용의 2행 사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나)

이물끼~ 저물끼~ 다혈어놓고~
췌네양반 어데로갔노 첩의집에 놀러갔네
비오고~ 바람분데 첩의집에 어이갔나
갈모우산 받치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²⁵⁾

(다)

물꼬청청 혈어놓고 주인양반 어데갔소
문에전복 에와서들고 첩의방으로 놀로갔네
무슨님의 첩이걸래 밤에가고 낮에가고
낮으로는 놀로가고 밤으로는 자로가요²⁶⁾

24) 『대계』 1-1, 845면.

25) 49번 자료, 『대계』 7-14, 620면.

26) 62번 자료, 『대계』 8-4, 740면.

(나)와 (다)는 B.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 가운데 Ba. 주인네 양반 사설에 해당하는 각편들로 첩에 눈이 멀어버린 주인네 양반을 회화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나)의 경우 A.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에 더하여 비 오고 바람 부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우산을 받쳐 들고 첩의 집에 놀러 가는 주인 양반의 행태를 꼬집어 말함으로써 주인네 양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A 유형에 더하여 밤이고 낮이고 하루종일 첩의 방에 가 있는 주인네 양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다만 “무슨님의 첩이걸래”라는 표현에서 그 비난의 화살이 미세하게나마 첩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A 유형에 추가된 2행의 내용이 주인네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할 만한 부분이지만 더 주의를 끄는 점은 A 유형을 기반으로 의미상 이어지는 사설이 연속해서 추가되면서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려 하는 시적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물끼저물끼 허혈어놓고” “첩으야방으로 놀로” 간 주인네 양반이 비 오고 바람 부는 상황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선다는 사실, 낮에는 놀러 가고 밤에는 자리 간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물꼬’ 사설에 ‘무엇’인가를 덧붙여 말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욕망은 Bb. 주인네 마누라 사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덧붙여 말하고 싶은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Bb 유형에서 주인네 마누라가 처음 등장하는 방식은 “요게꽃고 조게꽃고 반달같이 폼아놓고/쥬네마느래 거게도폼아노이 험삼한들 될 수가있나”이다.²⁷⁾ 선행 연구에서는 이 사설의 내용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주술적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또 농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육담(肉談)의 일종으로 파악한 논의들이 있었다.²⁸⁾ 우선 주술적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이해

27) 38번 자료, 『대계』 7-8, 852면. Bb 유형인 5편 중 2편(4, 38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A 유형이 속한 1번과 24번 자료에서도 이 사설이 A 유형의 사설 뒤에 바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등장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사설은 원래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사설이다가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이 된 듯하다.

28) 전자의 경우는 최철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최철은 ““여게폼고 저게폼고”라는 관용구는 바로 모를 심는 행위와 성적 행위를 동일시하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최철, 앞의 책, 225면.) 후자의 경우는 박선애가 대표적인데, 박선애는 이 사설의 내용을 육담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흥겹게 모심기를 하려고 하는 민중인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화자가 눈에 심은 모의 모양이 반달 모양처럼 되도록 모를 여기도 꼽고 저기도 꼽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주인네 마누라의 거기에도 꼽아 놓으나 그곳이 험상한들 될 수가 있나라는 언술은 주인네 마누라가 가진 생식 능력 혹은 성적 능력에 대해 조롱 조의 이야기를 보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전체 사설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설의 내용을 전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이는 이 사설의 내용을 육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육담의 일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인네 마누라의 거기에도 꼽아 놓으나 그곳이 험상한들 될 수가 있나라는 두 번째 행의 해석에 강조점을 둔다면 그 의미는 삶에 활력소를 주는 건강한 육담으로 마냥 해석되기는 어렵다. 주인네 마누라를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오히려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선행연구가 A 유형을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A 유형에 주인네 양반에 대한 은근한 선망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Bb 유형의 이 사설에서는 주인네 마누라에 대한 그 어떤 선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A 유형과 Bb 유형의 이 사설은 똑같이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A 유형보다 Bb 유형의 이 사설에서 지배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깊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인네 양반만이 등장하는 A 유형의 사설에서 비판의 대상에 놓이는 것은 바로 이 물꼬 저 물꼬를 다 털어놓고는 첩의 집에 가버려 자칫하면 농사를 망치게 할 수도 있었던 지배계층 남성의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다. 이러한 A 유형의 확장형인 Bb 유형은 이에 더하여 농사를 하더라도 농사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지배계층 여성을 비판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지배계층 남성의 경우처럼 현실 인식과 같은 관념적인 층위의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더라도 그 수확에 대해서는 물음표에 부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층위의 것인 곧 지배계층 여성의 ‘몸’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화화를 통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인네 양반과 주인네 마누라에 대한 그 비판의 층위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주인네 마누라

Bb 유형에서 주인네 마누라가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설이 등장하는 2편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3편의 자료에서 주인네 마누라는 서사민요인 첩노래 사설에 등장하는 ‘큰어머니’로 전화(轉化)될 가능성을 얻는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이 점을 면밀히 고찰해보도록 한다.

(라)

늦어오네 늦어오네 오늘아점숨이 늦어오네
아흐나아흠칸 정지칸에 돌고나니 늦어오네
여기뽑고 저게뽑고 권네마누라 거기뽑고
뽑기사 뽑았건만 영산이저서 아니켰다
이물기저물기 처정정혈어놓고오 권네양반 어드로갔나
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으야방으로 놀러갔네²⁹⁾

(마)

주인네양반은 어테가고 중참올줄로 모리시고
주인네양반이 임오정을몬잇어서 첩의집에 가고난께
주인네마누라 정신이빠자 아이참해 즐줄로모리더라³⁰⁾

(바)

서마지기 논자리에 이물기저물기 히씨놓고
우리임은 어테가고 물기거두로 안오시노
문에야전복 손에쥐고 첩의방에 놀로갔네

29) 19번 자료, 『대계』 7-2, 432면.

30) 59번 자료, 『대계』 8-3, 611면.

점심참이 늦어간데 우리야점심 늦어간다
 저게저게 저게봐라 켜네마느래 거동봐라
 앞쳐맬랑 앞에찌고 밥광주리 머리엿고 아장아장 걸어온다³¹⁾

(라)의 자료에서 1~2행인 “늦어오네 늦어오네 오늘아점심이 늦어오네/아흐나아흠칸 정지칸에 돌고나니 늦어오네”는 화자가 오늘 점심, 곧 새참이 늦게 온다는 사실을 과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며 3~4행인 “여기뽑고 저게뽑고 켜네마누라 거기뽑고/뽑기사 뽑았건만 영산이저서 아니켰다”는 바로 앞에서 검토한 Bb 유형의 대표적 사설로, 5~6행인 “이물끼저물끼 처정청혈어놓고오 켜네양반 어드로갔나/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야방으로 놀러갔네”는 A 유형의 대표적 사설로 나타난다. 이때 1~2행과 3~4행 그리고 5~6행의 핵심어는 각각 ‘점심’과 ‘주인네 마누라’ 그리고 ‘주인네 양반’이 된다. 따라서 자료 (라)는 ‘점심-주인네 마누라-주인네 양반’이라는 핵심어를 주축으로 사건성을 획득할 조짐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³²⁾ 그 이유는 실제로 자료 (마)와 (바)가 ‘점심-주인네 마누라-주인네 양반’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건성을 구축하기까지의 양상을 비교적 충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에서는 ‘점심-주인네 마누라-주인네 양반’이라는 핵심어가 본격적으로 사건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행의 “주인네양반은 어데가고 중참을줄로 모리는고”에서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바로 주인네 양반의 부재와 점심의 지연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2행의 “주인네양반이 임오 정을문잇어서 첩의집에 가고난께”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3행의 “주

31) 45번 자료, 『대계』 7-12, 556~557면.

32) ‘사건성’이란 김홍규가 『사설시조의 세계』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서정사에서 ‘예사롭지 않은 행동, 사태’로서의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를 서술하기 위해 고안해낸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서정사에서 나타나는 ‘사건성’은 곧 ‘일련의 행동이 시간적, 인과적 연쇄로써 서술되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이야기’라는 서사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서사성의 미숙한 형태로 규정되기 쉽다. 그러나 ‘사건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저마다의 욕구와 이해관계의 교차점에 놓음으로써 각기의 표정, 몸짓, 그리고 육성이 드러나게 한다. 김홍규는 이에 대해 ‘사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227~239면 참조.) 김홍규가 제시한 ‘사건성’의 개념은 비록 사설시조와 풍속화에 국한하여 논의된 것이지만 본고에서 살펴보는 ‘이 물꼬’ 사설의 파생형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인네마누라 정신이빠자 아이참해 줄줄로모리더라”는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각각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2행의 “가고난계”라는 서술어가 2행과 3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점심이 늦게 오는 이유는 주인네 마누라의 ‘정신이 빠져서’이며 주인네 마누라가 ‘정신이 빠진’ 이유는 주인네 양반이 첩의 집에 간 사실 때문이라는 내용의 인과적 서술이 가능해지면서 양반의 부재와 점심의 지연은 각각 ‘예사롭지 않은 사태’로서의 사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사건성을 획득하면서 사실 속 주인네 마누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점이다. 화자가 은연중에 주인네 마누라가 점심을 늦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대리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료(마)의 시적 화자는 주인네 마누라의 내적 심리를 자기 나름대로 헤아려 대신 말해주고 있다. 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인네 마누라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에서 주인네 마누라를 향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가 발견되는 것이다.

(바)는 의미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서마지기 논자리에 이물기저물기 히씨놓고/우리임은 어테가고 물기겨두로 안오시노/문에야전복손에쥐고 첩의방에 놀로갔네”가 앞부분이며 “점심참이 늦어간데 우리야점심 늦어간다/저게저게 저게봐라 쥘네마느래 거동봐라/앞쳐멜랑 앞에찌고 밥광주리 머리엿고 아장아장 걸어온다”가 뒷부분이다. (바) 역시 (마)와 같이 ‘여기꼬고’ 식의 사설이 사라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시간적, 인과적 연쇄로써 서술되고 있기에 나름의 사건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바)에서 첩의 방에 놀러간 이가 ‘주인네 양반’이 아닌 바로 ‘우리 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뒷부분에 등장하는 ‘우리 점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바)의 시적 화자는 점심을 기다리며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앞부분에 등장하는 ‘우리 입’이라는 표현과 연결시켜 보면 다시 그 시적 화자의 범주는 첩의 집에 놀러간 남편을 생각하면서 모내기를 하다가 점심을 기다리는 ‘농민 여성’으로 축소된다. 첩의 집에 놀러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주인네 마누라만의 몫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주인네 마누라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넘어서 농민 여성이 남편의

축적으로 인한 주인네 마누라의 심적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어쩌면 남편의 축적으로 인한 본처의 심적 고통이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넘어서 당대의 여성이라면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경험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앞치맬랑 앞에찌고 밥광주리 머리엿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주인네 마누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에 없는 따뜻함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주인네 마누라의 생식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냄으로써 주인네 마누라를 성적으로 희롱하던 부정적 희화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바)에서 주인네 마누라의 거동을 우스꽝스럽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 희화화가 아닌 긍정적 희화화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 (라), (마), (바)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설에는 주인네 마누라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첩노래의 사설이 ‘이 물꼬’ 사설에 수용된 양상을 추적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지점들을 제공한다.

3. ‘큰어머니’로 전화(轉化)된 주인네 마누라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 가운데 마지막 유형인 Bc. 큰어머니(첩노래) 사설의 자료를 살펴보면 A 유형에 ①“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꽃과나비는 봄한철인데 연못에 봉어는 사철이요”라는 내용의 첩노래 사설이 덧붙은 경우가 6편,³³⁾ ②“첩의야집에 갈려거던 나죽는꼴을 보고가소”라는 첩노래 사설이 또 한 번 덧붙은 경우가 4편,³⁴⁾ ③“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편의 첩노래 사설이 덧붙은 경우가 3편이다.³⁵⁾ 이 13편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설은 물론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인 “이물끼저물끼 허혈어놓고 쥘네양반은 어디로갔나/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으야방으로 놀로갔지”의 A 유형의 사설이다. 그런데 이에 한 가지 더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의 자료에서는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꽃과나비는 봄한철인데 연못에 봉어는 사철

33) 50번 자료, 『대계』 7-14, 812면. 14, 22, 29, 35, 37, 50번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34) 31번 자료, 『대계』 7-5, 114면. 8, 31, 47, 69번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35) 30, 43, 57번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이요”라는 사실이 또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첩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³⁶⁾ 이때 실제 가창 상황에서 창자가 첩노래를 꽃노래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³⁷⁾ 이는 그만큼 ‘꽃밭’과 ‘연못’, ‘꽃과 나비’ 그리고 ‘연못의 붕어’라는 본처와 첩에 대한 비유가 향유층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꽃과나비는 봄한철인데 연못에 붕어는 사철이요”라는 사실, “첩의야집에 갈려거던 나죽는 꿀을 보고가소”라는 사실이 온전히 주인네 마누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전까지 주인네 마누라는 오로지 시적 화자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대상이었다. 즉 “주인네마누라 정신이빠자 아이 참해 줄줄로모리더라”라는 사실 속에서 주인네 마누라의 심정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정신이 빠져서’라는 단적인 언술 속에서 주인네 마누라가 느낀 복잡한 감정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Bc 유형에서 주인네 마누라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주인네 마누라가 느낀 감정들이 언어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주인네 마누라는 첩을 ‘꽃밭’과 ‘꽃과 나비’에 비유해 그와의 사랑은 한철일 뿐이며 ‘연못’과 ‘연못의 붕어’로 비유되는 자신과의 사랑은 첩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사시사철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첩에게로 향하는 주인네 양반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주인네 마누라의 절박한 심정이 투영된 것일 터이다. 그러므로 ‘꽃밭’, ‘연못’과 ‘꽃과 나비’, ‘연못의 붕어’ 비유가 향유층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주인네 마누라의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 향유층이 깊이 공감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6) 조동일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민하는 주인공 여인. 기대를 배반하는 남편. 방관자인 시어머니. 그리고 첩”이 등장하는 D유형의 서사민요를 정리하였는데, 그가 채록하여 정리한 DI 자료를 보면 “첩에 집은 연꽃이요 큰어무집은 연못이라.”라는 사실이 등장한다. 조동일, 앞의 책, 43면, 263면 참조.

37) 47번 자료의 가창 상황 가운데 “꽃 노래라고 한 청중이 말했는데, 다른 청중이 “모심기 노래가 맞다”고 우겼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이때 창자가 구연한 모노래의 사실은 “권네양반 어디갔노 문애야대장부 손에다들고이/첩의방에 놀로갔네.../해는지고 다저문날에 옷갓을써고 어테가요/첩의방에 갈라꺼던 나죽는꿀을 보고나가소/첩의방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꽃과나비는 봄한철이요 연밭에 붕어는 사철이라/요게꽃고 저게꽃고 권네양반 등거리꽃고”로 청자가 지적한 ‘꽃노래’는 기실 ‘첩노래’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계』 7-13, 839면.

앞서 살펴본 Bb 유형의 사설에서 주인네 마누라는 희롱과 조소의 대상으로 혹은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 등장했었다. 첩노래 사설을 대거 수용하여 장편화된 Bc 유형에서는 대개 주인네 마누라가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Bc 유형의 ③자료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주인네 마누라가 시적 화자에 의해 대상화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시적 화자의 시선에서 특기할 만한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자료(바)와 비교해볼 때 더욱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료(바)를 다시 제시하여 주인네 마누라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설의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바)

서마지기 논자리에 이물기저물기 히씨놓고
 우리입은 어데가고 물기거두로 안오시노
 문에야전복 손에쥐고 첩의방에 놀로갔네
 점심참이 늦어간데 우리야점심 늦어간다
저게저게 저게봐라 권네마느래 거동봐라
 앞처맴랑 앞에찌고 밥광주리 머리엿고 아장아장 걸어온다³⁸⁾

(사)

물끼청청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데갔노
 문에전복 에리들고
 첩의방으로 놀러갔네
거동봐라 거동봐라
큰어마시 거동봐라
 드는칼을 품에품고
 첩의집으로 상해간다³⁹⁾

자료(사)에서 주인네 마누라는 이제 주인네 마누라가 아닌 첩을 둔 본 처인 '큰어머니'로 등장한다. 그런데 자료(바)와 비교해보면 똑같이 시적

38) 45번 자료, 『대계』 7-12, 556~557면. 밑줄=필자 표시. 이하 동일.

39) 57번 자료, 『대계』 8-1, 392면.

화자는 주인네 마누라 또는 큰어머니의 거동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 언술이 의도하는 바의 의미 층위는 현저히 다르다. 자료 (바)에서 시적 화자가 보라고 한 주인네 마누라의 거동은 “앞처맬랑 앞에찌고 밥광주리 머리엿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주인네 마누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반면 자료 (사)에서 시적 화자가 보라고 한 거동은 주인네 양반이 첩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잘 드는 칼을 품에 품고 첩의 집으로 향하는 큰어머니의 모습이다. 주인네 마누라는 더 이상 ‘꽃밭’과 ‘연못’, ‘꽃과 나비’ 그리고 ‘연못의 붕어’라는 비유를 들어 자신의 가치를 항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큰어머니의 거동 묘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에 없던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아)

이물께~저물께 다혈어놓고
 권네~양반 어데로갔노
 등님~에다 첩을~두어
 첩의~방에 놀로갔네

...

앞집~에 동세~들아
 뒷집에~ 동세~들아
 잡으러가자 잡으러가자~
 첩의년~을 잡으러가자
 큰칼~갈어 품에품고~
 어채갈랑~ 바른손에들고
 잡으러가자 잡으러가자
 첩의년~을 잡으러가자
 한등~장을 뛰넘으니~
 첩의집~이 비는구나
 두등장을~ 뛰넘으니~
 첩의집이~ 비는구나~

자료 (아)에서 주인네 마누라는 더 적극적으로 앞집의 동서들과 뒷집의 동서들을 불러 모은다. 앞집의 동서와 뒷집의 동서를 모두 호명하고 큰칼

과 어채를 든 뒤 첩을 잡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큰칼과 어채를 들고 담장을 하나씩 뛰어넘으며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첩의 집이 점점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첩의 집에 근접하고 있는 장면은 일종의 긴박감까지 선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큰어머니의 행차에 심정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노래의 창자와 청자, 곧 향유층이라 할 수 있다. 최자운의 지적처럼 유독 첩노래 사설을 수용하여 장편화된 모노레 사설의 창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⁴⁰⁾ 즉 이 노래를 향유하던 여성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첩을 잡으러 가는 큰어머니의 모습에 호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긴박감 넘치던 장면은 결국 큰어머니가 모 든 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첩의 처지를 확인하고 쓸쓸히 돌아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점은 큰어머니가 큰칼과 어채를 들고 앞집 뒷집 동서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첩의 집에 빠르게 당도하기 위해 담장을 뛰어넘던 호기로 운 자세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큰어머니가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그에 굴복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사설의 결말은 초반의 희극적인 정조를 잃고 비극적인 정조를 그려낸다.

지금까지 주로 ‘이 물꼬’ 사설의 확장형 가운데서도 Bb, 주인네 마누라 사설 유형과 Bc, 큰어머니(첩노래) 사설 유형에 대한 해석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물꼬’ 사설의 전체 69편의 자료 중에 43편은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인 A 유형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물꼬’ 사설은 결국 주인네 양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첩의 집에 놀러가는 주인네 양반에만 초점을 둔 Ba 유형의 사설들을 상기해보면 덧붙는 사설이 “비오고~ 바람분데 첩의집에 어이갔나/갈모우산 받치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또는 “무슨님의 첩이결래 밤에가고 낮에가노/낮으로는 놀로가고 밤으로는 자로가요” 등의 2행으로 주인네 양반을 중심으로 더 이상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 나타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이 물꼬’ 사설은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사건화의 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이 바로 창자의 문제이다. 이미 이야기하였다시피 Bc 유형에서 첩노래 사설을 수용하여 장편화한 3편의 모노레 창자는 모두 여성이다. 그리고 Bb 유형에서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하여 사건화의 가

40) 최자운, 앞의 논문, 369-371면.

능성을 보여준 3편의 모노레 창자 역시 모두 여성이다. 실제 모노레를 남성
과 여성이 함께 불렀다는 기록⁴¹⁾에도 불구하고 ‘이 물꼬’ 사설의 사건화 양
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첩노래 수용에 있어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여
성창자인 것이다. 왜 남성창자는 이러한 양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일까. 한 가지 단서를 다음의 모노레 사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자)

윤월윤월에 윤유월에 첩을 팔아 부채사고
구세월이야 닥쳐온게 첩의생각 절로난다⁴²⁾

자료 (자)의 시적 화자는 남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적 화자는 유월
의 극심한 더위를 이기지 못해 첩을 팔아 부채를 산다. 이 사설 역시 모노
레 사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설의 내용은 유월에 모를 심는 노동
이 시적 화자가 아끼던 첩을 팔아버릴 정도로 혹독한 것임을 방증한다. 그
러나 이 사설의 강조점은 가을이 닥쳐오니 첩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는 데
있다. 결국 이 모노레의 사설은 첩과 재회하고 싶은 욕망을 그려내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이 사설의 시적 화자에게 있어 첩은 이미 상실해버린 대상
이라는 점이다. ‘이 물꼬’ 사설의 주인네 양반에게 있어 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된 날씨와 노동 속에 부채를 사기 위해 자신의
첩마저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남성 향유층이 이 물꼬 저 물꼬를 다 헐어놓
고 첩의 집에 놀러가는 주인네 양반에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이상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즉 주인네 양반
에 대한 남성 향유층의 정서적 이해는 최소 비판 또는 최대 선망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반면 여성 향유층은 사설을 사건화함으로써 주인네
마누라가 자신의 소임을 그저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네 마누라에게 나
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강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정은 여성 향유층
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남편의 첩문제였다. 그러므로 여성창자는 주인

41) 실제로 모노레를 함께 가창한 남성 제보자와 여성 제보자는 서로 인척관계로 옛날에 함께
모를 심을 때 소리를 주고받은 기억을 되살려 교환창으로 모노레를 불러 주었다고 한다. 『
대계』 5-8, 114면.

42) 『대계』 8-14, 119면.

네 마누라에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노래를 주고받은 모든 여성 향유층의 집단적 공감미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 첩노래 사설이 유입될 수 있는 전거를 마련한 것이다.

IV. 결론

그간 모노래는 노동요의 하위 범주로서 강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로 인해 모노래의 구체적인 사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노동요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가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본고에서는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과 확장형에 대한 해석적 검토를 통해 모노래의 특정 사설에 첩노래 사설이 수용되는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물꼬' 사설의 기본형인 "이물끼저물끼 허혈어놓고 췌내양반은 어디로갔나/문에야대전복 손에들고 첩어야방으로 놀로갔지"라는 기본적 내용의 사설에 주인네 마누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꼬' 사설은 사건화될 단서를 얻는다. 특히 회롱과 조소의 대상이던 주인네 마누라가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서 거듭나는 점은 앞으로 "첩의 집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본처"의 첩노래 사설이 '이 물꼬' 사설에 수용될 수 있는 전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 물꼬' 사설에 장편화된 첩노래의 사설이 수용된 경우 창작자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첩의 집에 놀러가는 주인네 양반의 처지에 공감할 수 없었던 남성 향유층과 달리 여성 향유층은 첩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주인네 마누라의 처지에 쉽게 공감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 물꼬' 사설의 사건화 양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첩노래 수용에 여성 향유층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물꼬' 사설에 등장한 주인네 마누라를 회롱과 조소의 대상에서 공감과 연민의 대상으로 격상시키고 더 나아가 서사민요인 첩노래의 사설에 등장하는 '큰어머니'로까지 전화(轉化)하게 만든 '첩'의 존재이다. '첩'은 전근대 남성 중심의 일부다처제 현실을 암시하는 존재로서 당대 남성에게는 욕망의 대상으로, 당대 여성에게는 분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인식의 향방은 달랐지만 '첩'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 향유층 모

두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였기에 남녀가 같이 모를 심는 노동 현장에서 쉽게 공론화될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첩’을 바라보는 남성 향유층과 여성 향유층의 인식상 대립이 ‘첩’이라는 소재를 모노래에 끌어들이는 특이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첩’이 ‘이 물꼬’ 사설의 사건화 양상과 그것을 토대로 한 첩노래 수용 양상에 끼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2. 단행본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동문선, 1998.

김기현 외, 『농경문화를 꽃 피운 상주민요』, 민속원, 2013.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13.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최철, 『한국민요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3. 논문

강등학, 「<모심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제38집, 한국민속학회, 2003, 15~91면.

_____, 「<정자소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제29집, 한국민요학회, 2010, 7~62면.

강환희, 「모심기소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진순, 「한국 농업노동요의 분류와 분포-남한지역 농농사 소리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309~340면.

박선애, 「<모심는소리>연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28면.

_____, 「모심는 소리에 나타난 담론 양상」, 『인문과학연구』 제26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5~23면.

서영숙, 「모심는 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조-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1집, 어문연구학회, 1999, 183~212면.

_____, 「처침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의식」, 『어문연구』 제55집, 어문연구학회, 2007, 291~317면.

_____, 「충청북도 농업노동요의 전승양상 분석」, 『한국민요학』 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145~168면.

- 이창식, 『민요의 성담론과 사랑 표출양상』, 『실천민속학연구』 제8호, 실천민속학회, 2006, 133~189면.
- 이창신, 『충청북도 농요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장유정, 『교환창 모노래의 2행시 구성방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시어의 측면에서 본 교환창 모노래의 특성』, 『한국민요학』 제6집, 한국민요학회, 1999, 249~272면.
- 정한기, 『영남지역 <모심는소리>의 애정 노랫말에 나타난 정서와 그 의미』, 『한국민요학』 제31집, 한국민요학회, 2011, 235~264면.
- _____, 『영호남지역 <모심는소리>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과 배경』, 『한국민요학』 제39집, 한국민요학회, 2013, 297~327면.
- _____, 『충청의 자연과 민요문화권-〈모심는 소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72집, 어문연구학회, 2012, 245~275면.
- _____, 『호남 지역 민요의 배경과 특징-〈논매는소리〉와 〈모심는소리〉에 나타난 애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255~284면.
- 최원오, 『민요의 시학적 성격 연구-〈모심는소리〉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27~43면.
- 최자운, 『영남지역 정자소리의 가창방식과 사설구성』, 『한국민요학』 제30집, 한국민요학회, 2010, 355~382면.

A Study on Adoption Aspects of Concubine song of 'I-mulkko' saseol in Rice-planting Songs

Lee, Soyun

As the study carried out an analytic examination on the basic type and derived type of 'I-mulkko' saseol, it was found that when the landlord's wife appears in the saseol, 'I-mulkko' saseol starts to get groundwork which leads it to an event. Especially, the point where the landlord's wife who used to be the subject of sneer and ridicule becomes the subject of sympathy and pity seems to be establishing the groundwork where concubine song could later be joined to 'I-mulkko' saseol. Meanwhile,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the singers were all females in the case where the extended saseol of concubine song was combined to the 'I-mulkko' saseol. Regarding this point, it can be inferred that it is probably because the women who enjoyed the songs would have easily sympathized the landlord's wife who feels miserable because of the concubine while men who enjoyed the song couldn't easily sympathize the landlord who visits the concubin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omen enjoyers of the song could have actively engaged in turning the I-mulkko saseol into the event and accepting the concubine songs based on it.

Another point that deserves attention is the existence of the concubine, who raises the landlord's wife up to the subject of sympathy and pity from that of ridicule and sneer, and furthermore turns her into the 'big mother' who appears in the saseol of concubine songs, a type of folk ballad. Concubines, representing the reality of polygyny in the pre-modern men-centered society, were regarded as the subject of desire by the contemporary men and as the subject of hatred and anger by the contemporary women. Even though the directions of perception were different, as they were the subjects who get attention from both male and female listeners, concubines must have been the subject that can be talked about in the rice-planting field where both men and women worked together. Thus, the contrast in the

perception of men and women towards concubines results in the unique phenomenon of taking the subject of concubines into work folk songs, and this phenomenon can be said to have broken the boundary of genre between work folk song and folk ballad. Therefore, we cannot overlook the concubine's influence on the 'I-mulkko' saseol turning into an event and the acceptance of concubine songs based on it.

keywords: work folk songs, folk ballads, adoption, rice-planting songs, concubine songs, I-mulkko saseol, landlord's wife, concubine, women enjoyers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 ~2021. 11. 10. 계재결정: 2021. 11. 10.
--